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죽음준비 인식의 연구

정주영¹, 이미란^{2*}

¹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회가치사업본부, ²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Using Photovoice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eath Readiness in Babyboomer Retirees

Ju-Young Chung¹, Mi-Ran Lee^{2*}

¹KFHI Social Value Business Headquarters

²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요약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대량의 인구가 중년층에서 벗어나 노년층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의 주요인이 되었다. 또한 30년 이상 구조화된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은퇴 후 비구조화 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을 가지며 자살의 위험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은퇴자들의 죽음준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심층 탐구하였고, 은퇴자들의 노년기 죽음준비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참여자는 베이비부머 은퇴자 7명이며, 자료는 2개월 동안 수집하였고, 직접 촬영한 사진과 설명과 심층면담 내용을 주제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도출된 인식은 순리로 받아들이는 죽음을 맞이하며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프로그램을 담당할 지역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죽음준비의 인식을 통한 은퇴 이후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은퇴자, 죽음준비, 사회복지정책, 포토보이스

Abstract The retirement of the Korean baby boomer generation has become a major factor in an aging society as a larg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has moved from the middle-aged to the elderly. In addition, after being busy working at a structured workplace for over 30 years, after retirement, they could not adapt to the unstructured environment, causing depression and leading to social problems such as the risk of suicide. research was needed. This study uses photovoice to in-depth research on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retirees' perception of death preparation, who wants to live a life prepared until death, is used. Thi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7 baby boomer retirees, the data were collected for 2 months, and the perception deriv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hotos, explan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aken by the subjec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prepare It was a necessity for education. In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it is urgent to develop a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that can help the baby boomer retirees, and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cooperation of local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program is necessar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basic data in preparing social welfare policy measures for the elderly after retirement through the awareness of death preparations of baby boomer retirees.

Key Words : Baby Boomers, Retirees, Death Preparation, Social Welfare Policy, Photovoice

*Corresponding Author : Mi-Ran Lee(dsmr0815@kosin.ac.kr)

Received December 30, 2021

Accepted March 20, 2022

Revised February 1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베이비부머는 특정 시기동안 출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상황을 의미하는 사회적 용어이다. 한국전쟁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약 730만 명의 출생자들이 이에 속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 빠른 출생아 수 증가를 거쳐 1960년대에 이르러 매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세대이다[1]. 1980년대에 사회에 발을 들이고 직장생활을 하게 된 베이비부머들이 30-40대의 시점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인 IMF로 명예퇴직을 경험하고, 2008년에는 40대-50대 시점의 베이비부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 번 더 강제퇴직을 경험하게 되었다[2].

특히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가속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2020년에 약 730만여 명이며,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100세까지 연장시켰으며,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길어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성장기는 경제적 호황기였고, 부모들의 교육열로 학력 또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헌신하였고 노후도 준비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들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들의 노년기를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원하며 웰빙을 넘어 웰다잉을 위한 준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rikson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를 발달과정으로서 죽음도 삶의 한 과정[3]으로 보았으며, 잘 죽는다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그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 상황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게 된다[4]고 하였다.

노년기의 모든 심리적 불안의 근원에는 죽음불안이 관련되어 있는데 죽음이라는 사건보다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하여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며, 노년기 노인들이 정작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죽음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고, 집이 아닌 시설 등에서 장기간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5]. 그러나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남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준비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6]. 따라서 노년기를 맞이한 은퇴자들이 의미 있는 노년의 삶

을 만들어 가기 위해 죽음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죽음준비관련 선행연구는 ‘노년기 심리사회적 지지와 죽음준비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인들의 죽음준비를 도와주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7], 웰 다잉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죽음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주어졌다고 했다[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검토를 위함이며,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웰 다잉을 위한 준비의 인식이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사회복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포토보이스는 시각적 이미지인 사진으로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집단 약자들의 고통을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 중 Wang과 Burris의 연구방법이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 뿐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방법[9]으로 점점 참여자들의 인식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자의 선 경험으로 다년간 삶의 현장에서 은퇴자들의 직면한 문제점들을 보았으며,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으로 선 이해를 충족시켰고, 또한 연구의 타당도를 위한 사실적 가치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점검을 재차 받았다. 또한 연구의 일관성과 적용성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결과물을 얻고자 반복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연구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의 검토와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포토보이스는 은퇴자들의 삶 가운데 담겨진 경험을 사진과 심층적 표현으로 나타내게 하고, 사회적 이슈로 재진단하며, 사회복지의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적합한 연구방법인 것이다. 본 연구의 설계는 Wang과 Burris의 9단계에 기초하여 5단계로 설계하였으며, 참여자를 선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며, 사진을 선별하고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 참여자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로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기준표본추출법으로 모집하였다.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모집하였다. 연령은 50-70대이며, 은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전문직종 은퇴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구에 동의하였고, 사진촬영과 설명의 전달이 가능한 50대 3명, 60대 2명, 70대 2명으로 총 7명을 선정하였다. 면담지침서와 질문지는 사전검사를 통해 내용을 구성하였고, 연구 설계 5단계로 집단 활동과 개인면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Wang과 Burris의 참여적 분석법과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법인 선택, 맥락화, 범주화, 대주제 도출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설계 5단계와 자료 분석 4단계는 다음 Fig. 1, Table 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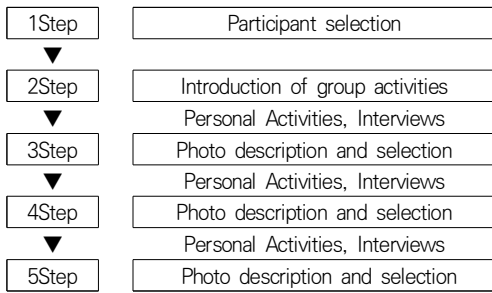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5 Step

Table 1. 4 Steps of Data Analysis

1. Choo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oose the right picture and description for the theme. Texting the story of the participants in the individual interview.
2. Contextu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peatedly contrasting and comparing the stories of the study participants. Deriving a theme concept by organizing meaningful characteristics and themecodes
3. Categor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subject concept with the original data Deriving a sub-topic. Categorize it again and derive the top topics
4. To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top topics of the bottom topics. Definition clearly.

3. 연구결과

수집한 자료에서 연구 참여자 7명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찍어 온 사진과 사진의 설

명과 면담을 통해 나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죽음준비 인식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가 가진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총 7명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다. 연령대는 50대 3명, 60대 2명, 70대 2명이다. 7명 모두 기혼이며 자녀가 있고,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살며, 명예퇴직이 2명이며 5명은 정년은퇴자였다.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은퇴 후 기간은 3명이 1년 이내이고 나머지는 모두 5년 이내이다. 은퇴 후 경제 활동은 모두 하지 않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s	1	2	3	4	5	6	7
Gender	F	F	F	M	M	M	M
Age(group)	50	50	60	60	60	70	70
Marriage	Y	Y	Y	Y	Y	Y	Y
Children	2	2	1	2	3	2	2
Family	Y	Y	Y	Y	Y	Y	Y
Reason for retirement	Early	Early	Retirement age	Retirement age	Retirement age	Retirement age	Retirement age
Religion	Y	Y	Y	Y	Y	Y	Y
Post retirement period	Within 5 year1	Within 5 year1	Within 5 years	Within 5 year1	Within 5 years	Within 5 years	Within 5 years
Economic activity after retirement	N	N	N	N	N	N	N

3.2 사진과 사진의 설명

연구 참여자가 촬영한 사진들을 집단 활동에서 죽음준비 인식의 주제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사진의 주제로는 죽음에 대한 감정과 느낌, 죽음준비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죽음준비방법은 어떠한지와 그들의 죽음에 관련된 바램 등이었다. 이 주제에 적합한 사진을 선택하였고, 연구자는 개인면담에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재차 확인한 후 최종 사진 18장, 설명 18건의 결과물을 얻었으며, 다음의 Fig. 2-19과 같다.



Fig 2. Looming over there



Fig 4. To come and go



Fig. 6. Emptying



Fig 8 The greatest parting and sorrow



Fig. 10. Talk often in everyday life



Fig. 12. Life and death is like an autumn field



Fig. 14. Testament



Fig. 16. Tidy up



Fig. 18. Accept the morals positively



Fig 3. Going home forever



Fig. 5. Remember me



Fig. 7. To die well



Fig. 9. Pray every day to go well



Fig 11. Someone tells me to prepare for death



Fig 13. What's left is to give back to society



Fig 15. I need help when I die



Fig 17. Coming without notice



Fig. 19. Complete the mission and leave

3.3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연구 설계에 따라 진행된 결과물에서 자료로 선택된 7명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12건으로 다음과 같다.

(참여자 1) 죽음준비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되었는데 누가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하겠나, 집에서 혼자 갇혀 살다시피 하고 밖엔 안 나가는 우울증 노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 방문하여 교육시켜주면 좋겠다. 젊은이나 자녀가 와서 이야기 하면 죽으라는 소리 같아 섭섭해 할거고 비슷한 연배나 친구 또래가 와서 말벗처럼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거동 불편하고 비판하고 우울해 하며 밖으로 안나가고 하는 독거노인들은 방문요양보호서비스와 말벗 서비스를 중복해서 못 받더라. 죽음준비 교육서비스 같은 것이 생겨나도 중복은 안되니까 받기 힘들겠는데 이런 교육들은 지역사회내의 교회들이 담당하면 어떨까싶고,,

(참여자 2) 나는 많은걸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해서 더 이상 뭘 누려봤으면 하는게 크게 없어요. 내일 아침에 죽었다? 뭐 하늘나라 가면되니까 크게 뭐, 나는 크게 걱정 안되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면 어떡할까 이런게 걱정이고,,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곳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평소 죽음에 대한 얘기, 해소 이런 거 필요하다.

우리는 경조사 행사처럼 부르잖아요 알든 모르든 막 연락하는 거 말고 정말 친했던 사람 가까이 지냈던 사람만 와서 진짜 저를 축하하면서 축하하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죽음준비로 시신기증을 했고, 묘는 없더라도 의대생들에게 몸이라도 줘서 잘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4) 죽음 이후의 일은 자녀들의 만족감을 위한 일들이 많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무덤이 무슨 소용인가.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 위해 미리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기에 죽음준비가 필요한데 죽음 준비하지 못하면 슬프고 아프고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이 되기에,,

(참여자 5)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노후에 은퇴를 하고 은퇴 후 삶의 기대감과 같이 죽음 이후의 삶도 기대하고 있다. 죽음은 인생의 대사로 출생이상으로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 아무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비극일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이제 좀 더 죽음과 가까워 오는데 그런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육신은 쇠약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때 감나라 배나라 하면 골치 아프거든 산소마스크 끼우면 자녀들이 그거 떼는게 쉽지 않거든,,

신변준비 자신의 사후 처리 문제까지도 이 죽음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정말 잘 죽어야 되는데 죽음준비는 꼭 필요하고,,

나는 교회서 이걸 누가전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로 중에나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그러니까 죽음 준비는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죽음 준비가 사실은 교회서 이제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좀 정착화 되는 것이 필요해,, 유튜브보니까 이런 교육이 자살예방도 된다는데,,

(참여자 7) 죽음준비 못하면 두렵지 어머니는 해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씀 하시고 늘 듣는 레파토리를 말씀 하셨는데 그게 죽음준비였더라,,

3.4 주제 개념

자료 분석의 두 번째 과정인 맥락화 단계에서 면담에서 나온 은퇴자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대조하여 비교하여 의미 있는 특성과 주제코드로 정리하여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죽음준비 인식의 주제개념이 21개가 나왔으며,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Subject Concept

Cases	Subject Concept
1	Looming over there
2	Going home forever
3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is like an autumn field
4	The greatest parting and sorrow
5	Accept the morals positively
6	Come and go
7	Complete the mission and leave
8	To die well
9	Emptying
10	Tidy up
11	Pray every day to go well
12	Talking about death in everyday life
13	Caring for family after death
14	I wish you to congratulate and bless your death
15	Expect life after death
16	What's left is to give back to society
17	Testament
18	Body donation
19	I need help when I die
20	Death preparation education service
21	Local church in charge of death preparation program

주제개념은 저 너머에 어렴풋이, 영원한 집으로 가는, 한번 왔다 가는, 가장 큰 이별과 슬픔, 비워내는, 잘 죽어서 보은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는 가을 들판과 같은, 순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사명을 완성하고 떠나는, 편히 가도록 날마다 기도, 일상 속에서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 죽은 후 가족들을 배려, 신변을 정리, 잘 죽어야 함, 죽음을 축하, 축복하며 보내주기 바람, 죽음이 후의 삶도 기대, 남은 것은 사회에 환원, 유연장, 죽을 때도 도움이 필요, 시신기증, 죽음준비교육서비스, 지역의 교회가 죽음준비프로그램 담당하면 좋음 등이었다.

3.5 하위주제, 상위주제, 대주제

21개의 주제개념과 원 자료를 비교하여 대조한 후 다시 범주화하여 8개의 하위주제를 얻었다. 8개의 하위주제를 다시 범주화 하여 2개의 상위주제를 얻고, 2개의 상위주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대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 Table 4와 같다. 하위주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원한 집으로, 왔다가는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임, 사명완수로 보은하기, 신변정리와 기도하기, 가족을 위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장례는 축하분위기로, 유연과 기증과 사회 환원,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함이었다.

상위주제로 도출된 내용은 '죽음은 순리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맞이한다.', '구체적인 죽음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이며 대주제로 도출된 내용은 '순리인 죽음을 맞이하며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이다.

Table 4. Subtopic, Top topic, Main Subject

Subject concept	Subtopic	Toptopic	Main subject
1	Crossing the border between life and death to an eternal home	Accepting death as a matter of course and welcoming it with prayer	We need education to prepare for the death of a reasonable person
2			
3			
4	Accept the parting that comes and goes		
5			
6			
7	Paying back by fulfilling the mission	Education for specific preparation for death is necessary	
8			
9			
10	Cleaning up and praying		
11			
12			
13			
14	Funeral is a celebration		
15			
16		Wills, donations and giving back to society	
17			
18			
19	Death preparation training is required		
20			
2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죽음준비에 대한 인식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미 죽음에 대하여 순리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죽음을 잘 준비하여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려는 인식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창운(2017)의 연구에서 웰 다잉 프로그램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죽음준비는 가족들을 배려할 뿐 아니라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런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과정들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은주(2018)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에서 노인 암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10]고 하였으나 교육의 시기와 교육의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로는 은퇴자들이 요구하는 죽음준비교육의 시기는 은퇴의 시점에서 필요하며, 교육서비스에 대한 담당과 장소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참여자의 경우에 지역 내의 종교시설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은퇴자들의 죽음준비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죽음준비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할 것과 둘째, 죽음준비교육의 협력기관으로 지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하고자 하며, 지역 내의 종교시설에는 학습을 위한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내 네트워크 조직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죽음준비 인식을 심층 탐구한 것으로 그들의 죽음준비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로 사회복지 정책적 대안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참여자는 모두 유종교자로서 향후 무종교자들의 인식을 통한 종교유무에 따른 비교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적은 수의 참여자의 경험 인식을 탐구하였기에 향후 보다 많은 자료를 통한 양적 연구가 이어져 은퇴자들의

욕구에 적합한 죽음준비교육 구축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Wikipedia. (2022). *Baby Boom*. Wikimedia Foundation, Inc (Online). <https://ko.wikipedia.org>
- [2] B. T. Kim. (2018). *A Study on Retirement Adaptation Type and Retirement asset Withdrawal Strategy of Baby Boomer*.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 M. R. Lee. (2012). Mediated Effect of Family Support in Influence Route of Health Condition and Self-integration of Old People -Focused on Difference by Ag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2(10), 280-290.
- [4] J. H. Sook. (2010).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Master's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Pusan.
- [5] S. J. Kim. (2015).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Good Death by Generations*.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ul.
- [6] H. K. Seo. (1987). A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death of the elderl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y*, 7, 39-60.
- [7] C. U. Cho. (2017). *The Effects of Psychosocial Support and Death Preparedness on Death Anxiety in Old Age -Mediating Effects of Ego-Integrity and Quality of Life on Death Anxie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Graduate University, Seoul.
- [8] M, S, Chang. (2011). *The Effects of the Well-Dying Program on the Death Attitude, Self-Integration, an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 [9] C. C. Wang.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
- [10] E. J. Jeong. (2018). *The meaning of Life, Perception of Well Dying,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among Older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정 주 영 (Ju-Young Chung) [정회원]



- 1986년 2월 : 동아대학교(이학사)
- 2007년 8월 : 경성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
- 2021년 2월 : 고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 현재 : 기아대책 사회공헌파트너십부문 지역사업팀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NGO
- E-Mail : jjy8867@kfhi.or.kr

이 미 란 (Mi-Ran Lee) [정회원]



- 1994년 2월 : 동아대학교(이학석사)
- 2011년 8월 : 신라대학교(문학박사)
- 2020년 8월 : 옥스퍼드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 현재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조사.
- E-Mail : dsmr0815@kosin.ac.kr